

비전2020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



이종윤 목사

들어가는 말

군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에 둔다.

- 1) 주님의 대명을 따라 A.D.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한다.
- 2) 진중 세례식을 통해 매년 22만 명 이상의 장병이 복음화 되도록 한다.

- 약력 : • 영국 성 앤드류스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대학교 수학
• 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실천운동 위원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남자 20 여만 명이 세례를 받게 되면 25년 동안 500 만 명이 신자화됨으로 그들이 가정을 가질 경우(고별료 가정처립) 효과적으로 가정복음화가 되어질 것이다.

3)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한다. 1996년 현재 1,200 만 신자(인구 4,500만의 25%)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2020년에는 3,700 만 신자(인구 5,000 만의 75% 이상)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될 것이므로 세계선교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 즉 현 기독교인 수의 0.04%에 해당하는 선교사 3,000명에서 2020년에는 0.1%에 해당하는 선교사 30,000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한다.

4) 복음의 능력으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인민군 100만 장병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군선교를 통해 이룩하게 된다.

이 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 실천해야 한다.

I. 통일 신학을 정립하는 일.

II. 복음화된 통일조국에 대한 비전을 한국교회 전체가 사명으로 받도록 하는 일(느헤미야 전략).

III. 비전2020운동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일.

I. 성경적 통일신학 정립을 제안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같이 단일 민족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됨으로 이스라엘의 제1차 민족 분단이 빚어졌다.

그리고 B.C. 926년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제2차 민족 분단이 생겼다. 이들의 통일 노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봄으로 민족 분단 반세기를 넘긴 우리 민족의 통일 원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1. 두 왕국의 실패한 무력 통일

남북이 분단된 직후 유다의 르호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워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려고 18만의 군사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만류하셨다(왕상 12:21-24, 대하 11:1-4). 그 후에도 르호보암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다(왕상 14:30).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 베냐민 지역을 회복했다(왕상 12:21, 대하 11:1). 이들 사이엔 빼앗고 빼앗기는 일뿐 아니라 아람 왕까지 전쟁에 끌어들여 혼전을 했다.

유다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아합 사이엔 한때 화해가 이루어져 양가의 혼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왕상 22:44, 대하 18:1). 그러나 이 같은 화해 분위기는 잠깐, 그후 남북은 극한 대립을 계속했다.

이스라엘의 베가(B.C. 740-732) 왕은 아람 왕 르신을 끌어들여 유다를 공격했다(왕하 16:5-6).

그러나 위기를 느낀 유다의 아하스 왕은 예언자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앗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사 7:1-17, 왕하 6:6-17). 앗시리아는 아람을 점령하여 르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지역도 점령하여 그들 지배하에 두었다(B.C. 733).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앗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다.

B.C. 722년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밋고 앗시리아에 조공 바치기를 거절하다가 앗시리아 침략으로 완전히 망했다. 결국 집안 싸움에 외세를 끌어들임으로 통제로 망한 격이 되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앗시리아 정책을 쓰고 조공을 바침으로 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주 독립 국가라기보다 유다도 앗시리아의 속국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단 후 약 200년간 공존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으로 저들은 서로 힘의 우위만을 찾는 무력통일 정책을 썼다. 그러나 이 같은 무력통일 정책은 국력 소모만 될 뿐 완전 통일엔 도움을 주지 못했다. 더구나 외세를 끌어 들임으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외세에게 차례로 먹히는 결과만 가져왔다.

결국 무력통일은 성경이 제시하는 통일 방안이 아님을 확증시켜 준 셈이다.

2. 포로기 전후의 통일사상(역대기를 중심으로)

A. 온 이스라엘 사상

역대기의 저자는 온 이스라엘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족보를 말할 때도(대상 1-9장)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외시키지 않고 12지파를 다 소개하고, 다윗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

로 등장시킨다(대상 11:18).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실(삼하 2:8 이하)을 역대상 11장 이하에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포로 후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통일 이스라엘의 이상적 왕의 모델로 다윗을 내세우기 위한 역대기 기자의 신학적 표현이다.

이것은 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통성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인구 면에서는 12지파를 다 포함하고 지리적으로는 이집트 시홀에서부터 르보하맛까지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다(대상 13:5).

이 같은 통일신학은 역대하에서도 나타난다. 르호보암 이후의 남북 분단 시대에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이라 부른 것은(대하 11:3, 24:5, 28:23, 31:1) 유다가 참 이스라엘(민족 정통성)이라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직후 북왕국에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왕국으로 내려왔다(대하 11:13).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그들을 폐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도 북쪽의 우상 숭배 강요를 피해 하나님께 예배키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대하 11:16).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당수가 남쪽으로 피난와서 정착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12지파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왕국 유다는 비록 국토는 유다와 베냐민에 국한되어 있으나(대하 11:3) 인구 구성 면에

서는 온 이스라엘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온 이스라엘 사상은 타당성을 갖게 된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거행키 위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즉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에 파발꾼을 보내 그들을 초청하였다(대하 30:1-10). 이것은 역대기의 특수 자료로 여기서도 역대기서의 통일신학을 찾을 수 있다.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유다 지역뿐 아니라 북왕국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온 이스라엘 땅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대하 34:6-33).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도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도 거두게 하였다(대하 34:9). 유월절도 함께 지켰다(대하 35:18).

B. 한 형제 사상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그들은 서로 싸우려고 군사를 동원했다.

이때 예언자 스마야가 이를 만류했다. “여호와와 말씀이……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대하 11:4). 나라는 둘로 나뉘었으나 한 형제 사상을 보여주었다(대하 28:8, 11:15). 나라는 집권자들로 인해 나누어졌지만 백성들은 아직도 한 형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C. 한 하나님 사상

유다의 하나님은 아직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기도 하다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사상이다(대하 13:12, 28:10,

30:8). 하나님은 북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들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대하 22:7). 이스라엘에도 미가야 같은 예언자가 활동하는 것은 인정했다(대하 18장). 북왕국은 결코 하나님 없는 이방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형제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자세를 반성해야 한다.

역대기엔 북왕국 역사가 실려 있지 않다. 그것은 남북 분리 사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족통일의 표현이다. 즉, 한 민족 두 왕국 체제가 아닌 한 민족 한 왕국 체제(다윗 왕국)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비합법적이라 생각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거시킨 것이다.

포로 이전의 역사를 다룬 역대기 상하와 마찬가지로 포로 이후를 다룬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온 이스라엘 사상은 나타난다. B.C. 515년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속죄제 때 남쪽 두 지파만을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숫염소 12마리로 제사를 드렸다(스 6:17). 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를 드렸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것이다(스 8:35). 이처럼 역대기는 남북 분리주의가 아닌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온 이스라엘 사상을 계속 강조한다.

다만 다윗 언약을 어긴 사마리아 집권자들과 종교혼합주의자들은 거부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비록 사마리아인이더라도 구별치 않고 받아들였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온 이스라엘 사상이 다윗 왕조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다윗은 남유

다의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상화된 다윗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즉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우리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

3. 예언자들에게 나타난 통일신학

A. 이사야 11장 11-16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그 남은 백성을……돌아오게 하시며……모으시며…….” 그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말한다. 그 날엔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서로 싸우고 다투던 이들이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B. 호세아 1장 10-11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영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 날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이다. 이 같은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

C. 레위기 3장 18절 “그 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예레미야는 통일된 새 나라의 비전을 본 것이다. 이러한 통일된 민족을 이루게 하는 분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 이시다.

D. 에스겔 37장 15-28절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언자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16-17절).

흥미있는 것은 이 두 막대기에 쓰인 글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온 백성(족속)”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평범한 시민이나 다름 바가 없는 민초요 뿌리다. 이 같은 공통의 뿌리에 의하여 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지배층을 말한다. 지배권력의 이질성 때문에 민족이 둘로 나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된 나라의 왕은 다윗이다(24절). 그 다윗은 흠이 많고 실정을 많이 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아니고 상징으로 이상화된 다윗, 즉 메시아를 의미한다.

예언자들의 통일 신학에서 우리는 공통점 셋을 찾을 수 있다.

1)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선 통일 성취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미래 사건 혹은 종말론적 사건을 기대하고 있다.

2) 따라서 남북화해, 민족통일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권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3) 민족통일의 시기는 한 영도자 곧 메시아의 도래 시기와

결부되어 있다. 민족통일을 가져다 줄 메시아는 다윗 또는 다윗의 후손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다윗이 아닌 이상화된 다윗이다.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하며, 통일이 되었다 해도 무의미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통일 노력과 통일 신학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찾자.

1)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은 지배계급(권력자)들의 집권욕에서 기인된다. 한국의 남북 분열도 우리 자신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분히 미·소 양진영의 패권주의와 당시 민족 지도자들의 사욕이 없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다윗을 이상형으로 제시한 역대기 신학이 있지만 사무엘서에 의하면 다윗의 역할은 훨씬 축소되고 대신 백성의 역할이 증대된다. 통일을 이룩하는데 백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한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 무력 통일 정책은 서로에게 상처만 더했을 뿐 통일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3) 역대기에서 온 이스라엘 사상이 강조되었다. 종족이나 지리적 면에서 민족 동질성이 강조되었다. 한 민족, 한 형제성이 강조되므로 서로 비방하고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4) 히스기야 요시아 왕 때엔 북쪽 동포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가 독일 통일을 앞당겼음을 기억하자.

5) 역대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심을 인정하자.

6) 통일을 위해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서로 연결하고(에스겔의 경우처럼)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7)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통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로 통일을 기다렸다.

8) 결국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는 군선교를 구체화해야 한다.

II. 복음화된 통일 조국에 대한 비전을 한국교회가 사명으로 받고 이를 실천케 하는 일 : 느헤미야 작전을 실천함으로

B.C. 445부터 B.C. 432년까지 예루살렘 총독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전략을 우리의 군선교 작전 지침으로 삼기로 하자.

1. 우선권 선정을 바로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먼저 할 일이 있다.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민심을 모으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다.

용기와 행동이 요청되는 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했듯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먼저 했다(느 1:4). 그는 주야로 기도하되 하나님을 찬양하고(1:5-6)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6-7절). 그리고 감사와 애원의 기도를 지구력 있게 드렸다(느 1:8-11, 2:1).

비전2020운동의 성패는 전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있음을 알자.

2. 중간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선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백성에게 바르게 전달할 사명과 그 비전이 제시한 길로 백성을 끌고 갈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중간 지도자의 역할은 결코 쉽지가 않다. 창의성 발휘가 어렵고 권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며 책임은 과다하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중도 하차하고 만다.

느헤미야는 아직도 파사의 속국으로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수산궁과 교통이나 통신망도 없는 먼 곳에 있으면서 상하 관계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 당시 파사의 왕은 절대 권력자였다.

왕이 곧 법이다. 짐승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이 이미 거절한 바 있는 예루살렘 재건을 건의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

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성취시켰다.
그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나?

3. 느헤미아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충성은 틀린 것을 옳다 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항상 반대만 해서도 안 된다. 충성해야 할 대상을 위하여 일하는 한 그것이 충성이다.

느헤미아는 “왕은 만세수를 하읍소서”(2:3) 한 것은 위선적 말이나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의 마음엔 항상 왕과 나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국을 위하여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 그렇다면 민주적이 못 되고 자유를 박탈당한다 해도 하나님 섬김을 하려는 일은 할 수 없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이상이며 비전이다.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고 나라 사랑의 길임을 믿어야 한다.

4. 기지(Tact)를 바르게 발휘하라

느헤미아는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는 왕의 질문에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말을 하여 왕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2:3)이라 말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냈다.

“당신이 끝을 얻기 원한다면 벌통을 발로 걷어차지 말라”

는 카네기(Dale Carnegie)의 말은 명언이다. 범사를 지혜롭게 하되 지혜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5. 정직하게 하라

기지를 발휘하다 보면 신실성을 상실할 경우가 많다. 느헤미아는 왕의 질문에 조상의 무너진 성을 중건하기를 원한다(2:5)고 했다.

잘못된 통계보고로 숫자 놀음만 하지 말고 정직한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물질 관리에서 정직성은 이 운동이 장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6.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느헤미아는 모든 일을 하기 전 먼저 기도를 했다(1장). 기도의 사람인 그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전2020은 우리의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다. 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7.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라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구체적 목표(goal) 설정을 한 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 ① 당시 산림감독 아삽의 이름까지 알고 그에게 조서를 내려 재목을 구하라 했으니 정

보 수집을 철저히 했다. ② 성을 수축기 위한 기간을 알아보고, 예루살렘 가는 길의 안전보장을 위해 유브라데 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냈으며(2:6-7) ③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요청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비전2020의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8.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기도했다. 그의 소원대로 왕의 허락을 받았을 때 그는 그 결과가 자신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2:8)라고 했다. 인간이 100%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헛수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엡 3:20-21).

성경 비평학자들은 느헤미야서는 너무 영적이고 비실제적인 책이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 같은 생각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의 말이다. 느헤미야서야말로 가장 실제적이고 교리적 주제를 갖고 있는 책이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자.

그가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했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는가를 이미 공부했다. 왕이 이미 선포한 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으며 그 슬한 역경과 방해물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그가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느헤미야는 너무 큰 과업 앞에 서 있었다.

파괴된 성의 부분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다양한 기술자가 동원되고 무거운 돌을 옮겨야 했다. 거기에 그들은 이미 지난날 실패한 역사가 있었다.

B.C. 538년 고레스 왕 2년에 즉 93년 전 유대인들은 성을 쌓으려 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바 있었다. 13년 전 왕이 중단시킨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부터가 부담이 되었지만 주변국가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마저 있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먼저 떨쳐 버려야 했다.

2) 일을 저지하려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미 실패한 경험뿐 아니라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경험파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과중한 부담 그 자체가 지도자에게겐 기회였다. 그는 백성들에게 ① 동기 부여를 바르게 해줌으로 무관심자들과 불평자들의 노를 잠재울 수 있었고 ②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맞추어 백성으로 하여금 호기심과 열심을 갖게 했으며 ③ 그 과업을 백성들과 함께 뚫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갖게 했다.

3) 그는 내부의 적도 외부의 반대자와 함께 물리칠 수 있는 목적의식과 분별력 그리고 담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 새 힘을 공급받았다.

4) 그는 성공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으며(6:16) 계속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해결할 능력과 경계

심을 갖고 앞으로 될 일을 준비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새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국가적 갱신을 계속 촉구했다. 결국 갱신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했으며(8장) 죄를 슬퍼하고 회개케 했고(9장) 그 결과 삶에 변화를 일으켜 국가 재건의 기틀을 놓았다(10장).

누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느껴 미야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

III. 비전2020운동의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비전2020운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시해 본다.

1. 일반 및 군인 교회를 중심으로 비전2020운동 지회를 각각 조직 운영한다.
2. 비전2020운동의 조직을 위한 세부 계획 지침서를 작성 발표하여 지회 창설을 돕는다.
3. 전군 기독장병을 전산 관리하고 군인교회와 일반교회가 지매 결연을 하도록 하며 기독장병들을 위한 기도 동역자를 찾아 연결시켜 준다.
4. 기독장병 영성 훈련을 강화하여 복음 확산의 전초병이 되게 한다.
5. 일반교회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인식과 관심 그리고 기도 협력을 고취키 위한 전략 수립을 한다.
6.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반드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

설에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한다.

7. 성장이 둔화된 한국교회를 회생시키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비전2020을 통해 일으킨다.

맺는 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 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자심이로다”(시 60:10-12).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삼하 8:14),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삼하 5:1-5),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삼하 5:10).

“그 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삼하 5:17-25).

군선교의 목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 민족 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비전2020운동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자!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이종윤 목사

한국교회는 풍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는 민족호를 바라보면서 큰 비전을 보아야 한다. 조국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속히 실현해야 한다. “민족 75%를 그리스도께로” 2020년까지 인도하자는 새 비전은 한국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2020년까지 모든 복음(Whole Gospel)을 모든 사람(Whole People)에게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힘을 다하여 전함

- 약력: • 영국 성 앤드류스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대학교 수학
• 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실천운동 위원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것이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목표다. 우리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도 있지만 다가올 미래 충격을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복음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복음화 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한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요청된다.

그 첫째는 받은 과업 앞에서 연합(unity)하는 일이다.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전 사명자들의 연합이 먼저 필요하다. 연합은 우리의 증거를 강하게 한다.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를 참회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피해야 한다. 진리와 예배, 거룩과 선교에서 깊은 연합을 찾도록 힘써야 한다.

선교와 전도를 효과 있게 하려면 권역별, 지역별 연합을 해야 한다. 개인전도 전략이나 미전도 종족 전략도 이 같은 연합 운동을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자국민 선교나 선교사들의 활동도 협력을 통해 선교훈련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선교를 벗어난 개인주의나 제국주의적 독립 선교가 최근 동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선교에서 보여 준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케 된다는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국교회 지도자들과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협력을 하되 극단적 신비주의자들과 잘못된 자유주의자들과의 연합은 복음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타종교는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의 연합 또한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연합 운동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기 교단 소속 교회들의 연합과 타교단 소속 교회들과의 협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같은 협력을 통해 북한 선교 또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과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군복음화를 위해 매년 22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저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지속게 하는 일은 군목과 일반교회 목사, 군중병과 교회 모두가 협력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21세기 지도자는 연합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 둘째는 세상 앞에 내어놓을 가견적인 것(visibility)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떤 허례적인 것이나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에게 자기 경건을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거나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권능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복음의 신뢰성은 약화되기 때문에 복음은 들려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지게 해야 한다. 귀머거리의 귀를 낮게 하신 주님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가견적인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는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한다.

복음의 가견성은 개인적이고 지역적이며 사회적이어야 한다. 복음을 외치는 사람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설교자가 말한 것을 몸으로 체현하는 것이

다. 말과 생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

복음의 가견적 체현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은 개교회들로 하여금 천국의 사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사회의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음은 사회적 섬김을 통해서도 보여진다. 주님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보이는 사회적 활동 즉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일들을 항상 병행하셨음을 잊지 말자. 복음은 선한 사업을 통해서도 전해진다.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즉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난 소외된 곳에서도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군복음화에 크게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계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듯 교회와 기독교장병들은 개인과 단체를 통해 계급을 존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 겸손, 성실성, 근면성, 희생정신, 정직성, 용서, 화평과 같은 복음의 내용을 유감없이 나타내야 한다.

그 셋째는 복음 앞에서 명료성(clarity)이 필요하다. 복음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주 관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는 이 복음 진리가 종종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지식적으로 혼란

에 빠져 믿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쇠잔해져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 진리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거나 갱신하려는 운동이 있었다.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도록 복음을 재해석하거나 변경시켜 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문화적 마찰이나 종교적 갈등을 피해 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변증하는 것은 구분되지 않았다. 우리는 바울이 베스도에게 한 말처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reasonable)을 하나이다”라고 해야 한다. 모든 종교가 독립적으로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인정하지는 종교 다원주의(pluralism)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진리를 기준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 분만이 최종 권위임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의 명료성만이 복음증거를 분명케 한다. 우리는 방법론에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심리적 압박이나 물질적 유혹으로 해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부끄럽거나 숨겨질 것이 아니요 속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므로 당당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 군 내부에는 다원 종교체제로 자칫 타종교와의 마찰 내지는 경쟁 관계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타협이나 야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민족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며 개인과 부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임해야 한다.

그 넷째는 그리스도 앞에서 일관성(consistency)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교 모델을 보여 주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듯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신 이 말씀은 선교는 모두 성육신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 사회적 실존에 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비운 것이지 그 본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으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의심하는 자들의 의심 속에 사랑과 동정심을 갖고 들어야 한다. 질문자들의 질문 속에, 그리고 갈 길을 잃은 이들의 고독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동일성을 상실치 않으면서 그들과 동일시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과 가치관, 기존 원리를 좇는 삶의 양식과 판단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군중을 향해 종종 팽과리 소리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그 말씀이 그런 세계에 침투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중 집회나 집단 전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군중을 향해 전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 같은 방법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말씀선포 이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전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노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일관성 있게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빛을 가져오고 공의를 심기 위해 핍박과 죽음을 당하신 고난의 종으로 끝까지 사셨다.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는 비결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셨다. 마침내 그가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다.

오늘날도 고난받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고난을 통해 세우시게 하셨다. 우리는 복음이 원하고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이 있다. 2020년까지 매년 군인 신자 25만 명을 배출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행정과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만 민족 75%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다섯째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겸손(humility)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의 모델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겸손보다 더 아름다운 덕성은 없다.”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 된다. 겸손한 메신저 즉 복음 증거자는 문화적 우월감이나 제왕적 생각을 단념할 필요가 있다. 전도자의 겸손이란 성령께 의존하는 삶을 말한다. 성령이 사회적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과 지적 결론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우리

는 성령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의존하고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성령의 증거가 없이는 우리의 증거는 헛되다”고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은 고백한다. 성령은 최고 증인일 뿐 아니라 소경의 눈을 여시고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최고 전달자이다.

오늘날 복음을 방해하는 지역감정 또는 계층간 대립은 무너뜨려져야 한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겐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변해야 산다는 소용돌이 속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퇴출운동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제 는 교회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4만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 그리고 실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1천 군인 교회들이 사력을 다하는 전도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 나라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됨으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전2020운동이야말로 애국애족 운동이요 신앙전력화 운동이며 한국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국교회는 이제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비전 2020을 제창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이다.